

청렴민관협의체 구성



직업환경연구실은 공단의 청렴성 향상과 정도관리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5월 26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직업환경연구실 송세욱 실장과 전국산업보건분석협회의 회장 등을 중심으로 청렴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날 협의체를 통해 정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청렴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협업을 통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험실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최

화학물질독성연구실은 5월 25일(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고, 현장 경험과 전공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대생과 함께하는 실험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오공과대학교 화학소재융합학부 교수 및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중호 실장의 ‘안전공학도의 역할과 미래’, 이근원 소장의 ‘화학물질 취급·사용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으며, 화학안전 관련 물리적 위험성 시험·평가 장비의 이론 및 응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장비 및 실험실 시설을 견학함으로써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및 한국법정책학회의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정책제도연구부 조호학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쟁점과 노동법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춘계학술대회(5.20)에서 ‘산업재해 보고 위반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어 법정정책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5.21)에서도 ‘사업장의 양질일자리에 관한 고찰’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개최



화학물질독성연구실은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화학공정안전전문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한 대응방안, 향후 화학사고 예방정책 방향과 각종 안전관리제도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6년 제1차 안전보건정책 연구 포럼 개최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4.29(금) 오전 11시부터 서울북부지사 8층 교육장에서 제1차 안전보건정책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동력의 고령화 등 고용노동정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관련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원 이경용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안전보건정책 연구 포럼의 취지 및 금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정책제도연구부 김영선 박사가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를 소개하고 주요 결과를 설명했다. 뒤이어 노동연구원 김정우 팀장 등 포럼참석자 12명은 이후의 연구발표 주제와 개최일정을 논의하였다.

제2차 안전보건정책 연구포럼은 6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북부지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미충족 의료수요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조교수가 발표한다.

건설재해예방 포럼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5월 20일 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공단 임직원과 일본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JNIOH)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韓-日, 건설재해예방 해법 찾는다’를 주제로 「건설재해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표자로 초청된 JNIOH 토요사와 야스오 소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일본의 대응전략과 최근 건설안전에 위한 정책·제도 등의 연구사항을 소개하였으며, 연구원에서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현장 사망재해의 감소방안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한편, JNIOH는 산업재해와 질병 예방을 위해 일본 정부가 1942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원과는 2006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 양국간 공동 연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최근 일본의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전략과 건설안전 관련 재해 예방 연구동향 등이 소개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재해감소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실무자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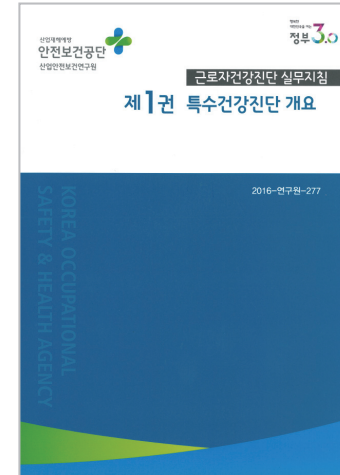
직업건강연구실은 지난 4월 29일(금)에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분석수탁기관의 분석업무 실무자 14명 및 공단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탁기관의 정도관리 강화 및 고시 반영에 대한 실무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연구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현장 친화적인 연구 수행이 기대된다.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판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최신정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관련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누리집의(<http://oshri.kosha.or.kr>) 공지사항 및 역학조사·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협업 및 산업보건서비스 관리를 위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기술세미나 개최



직업건강연구실은 4월 29일 서울도시철도 힐링센터에서 특수검진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대학의료기관 등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과 최근의 산업보건의 동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보건서비스 질관리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급성중독성질환 관리체계, 직업성질환 환자 및 직업성 암환자 대조군 연구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미나에서 수렴한 정보와 의견은 추후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 산업보건분석 세미나 개최

직업환경연구실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16년 상반기 산업 보건분석 세미나’를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작업환경 측정기관 및 특수검진기관 분석자들의 측정·분석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공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등 2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업환경측정 제도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개선을 위한 토론과 산업위생 분석 강의가 진행되어 측정기관의 분석능력 향상 및 정보 교류의 자리가 되었다.



WHO협력 아시아 개도국 산업보건관계자 초청 연수 실시

직업환경연구실은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세계보건기구(WHO)협력 아시아 개도국(몽골,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산업보건관계자 5명을 초청하여 ‘편광현미경을 활용한 석면 시료분석 이론 및 기술’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석면분석연구에 대한 개요, 편광현미경 조작 및 설정 등 석면 분석이론 강의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수는 석면측정 및 분석 연구 등의 수준향상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석면 관련 업무상 질병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